

8. 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46:1-27)

1)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46:1-7)

- 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 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 6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 7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46:1/ '이스라엘이...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국가적인 의의를 가짐.

- 브엘세바는 이삭의 주 정착지이며, 야곱이 하란을 향해 떠난 출발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 야곱에게는 하란으로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

-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제단을 세웠고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 (21:33).

46:2-3/ '하나님이 이상 중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꿈이나 밤이 아닌 '환상(들)'으로 나타난 유일한 사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을 떠나는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야곱.

-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 이삭이 받았던 직접적인 금지, 야곱 자신의 하란 체류 경험 등의 원인.

46: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벨엘에서의 서약을 회상케함(28:15).

- 야곱이 (죽어서라도)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49:33-50:14).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킬 것-요셉이 살아 있다는 보증.

46:5-7/ '이스라엘의 아들들': 개인 '야곱'과 국가 '이스라엘'을 함께 언급함으로 야곱의 이주가 국가의 이동임을 암시.

'야곱이...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 이주를 반복하여 강조. 야곱의 관점에서 기술.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아들들의 관점에서 기술.

2)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46:8-27)

- 8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 9 르우벤의 아들 하눅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 10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 11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 12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 13 잇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룬이요
- 14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 15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 명이며

46:8a/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족보의 전형적인 표제어.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야곱의 행동을 이 나라의 미래와 연결.

46:8b-9/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첫 번째 그룹은 레아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 그중 맏아들 르우벤이 가장 먼저 등장.

46:10/ '시므온의 아들들': 후손이 여섯이며 '오핫'을 제외한 아들들은 각자 씨족을 생산(출 6:15).

46:11/ '레위의 아들들': 성소를 관리하는 세 가문을 이름. '고핫'은 모세의 조부.

46:12/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가나안인 아내 수아를 통해 낳은 아들들. 엘과 오난은 후사 없이 죽음.

- 그럼에도 애굽으로 이주한 목록에 포함.

'베레스와 세라니':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들. 베레스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

46:13/ '잇사갈의 아들들': 잇사갈은 네 아들을 낳음.

46:14/ '스불론의 아들들': 세 아들이 씨족을 형성.

46:15/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삼십삼 명이며':

- 서른세 명의 '아들과 딸들'. 후손의 수가 가장 많음. 다른 딸도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16 갓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 17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 18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 명이요

46:16/ '갓의 아들들': 갓으로부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들의 족보가 시작. 갓은 일곱 아들을 낳음.

46:17-18/ '아셀의 아들들': 아셀의 족보에는 네 아들과 딸 하나, 두 손자가 기록됨.

'실바가...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육 명이요': 실바의 무리의 총 수는 16명.

- 19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 20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 21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뭉빔과 훌빔과 아룟이니
- 22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십사 명이요

46:19-20/ '야곱의 아내': 라헬에 대해서만 사용된 표현.

'애굽 땅에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 요셉의 자녀 출생지를 밝힘으로 야곱의 후손이 가나안 바깥에서도 태어났다는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

46:21/ '베냐민의 아들들': 민 26장과 역대상 7, 8장에 나오는 베냐민의 평행 족보와 차이가 있음. 미래의 후손까지 포함.

- 23 단의 아들 후십이요
- 24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 25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칠 명이요

46:23-25/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빌하의 계보에는 일곱 후손이 등장.

- 26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 27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던라

46:26-27/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육십육 명이니... 칠십 명이었던라': 셈의 결과가 다름 (66과 70).

- 미드라쉬의 설명: 하나님까지 포함(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 유다의 족은 두 아들(엘과 오난)과, 애굽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요셉의 두 아들(에브라임과 므낫세) 제외.

- 이스라엘의 장로, 또는 열국의 목록(10:1-32)에 나오는 칠십 개 국가를 암시하기 위해 70에 맞춤.

* 야곱의 무리가 주님이 복을 줄 세상의 국가들의 대표라는 의미.

- 중요한 사실은 적은 무리들이 애굽에 들어가 짧은 시간에 급증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9. 가족의 구원자 요셉(46:28-47:12)

1) 야곱 앞에 선 요셉 (46:28-34)

-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46:28/ '야곱이 유다를... 보내어': 유다는 계속해서 형제들 사이에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방해했던 유다가 요셉과 아버지의 가교가 되어 재회를 주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도착이 임박했음을 알리도록 했다는 뜻.

46:29/ '수레를 갖추고(아사르)': 요셉의 투옥, 형제들의 투옥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 감금이 은혜의 재회로 이어짐.

'그에게 보이고(바예라)':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단어. 이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있음을 암시.

46:30/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에서의 재회를 연상. 요셉과의 재회는 브니엘 사건과 같은 경건한 의미가 있음.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자신이 겪은 시련의 깊이를 말로 표현. 죽을 준비가 될만큼 위안을 얻음.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나 묻거든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46:31-34/ '요셉이... 이르되': 요셉은 형제들에게 고센 땅을 확보하기 위해 바로와 교섭할 계획을 설명.
 - 대대로 목축업에 종사. 넓은 목초지가 필요함.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격리가 필요.

2) 바로 앞에 선 요셉의 형제들(47:1-6)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47:1-2/ '요셉이...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수를 줄임으로 바로의 경계심을 가라앉히려는 의도.
 47:3-4/ '바로가... 너희 생업이 무엇이나': 요셉의 예상대로 형제들의 직업을 물음.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기근 때문에 '잠시 머문다'는 의미.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머물 땅을 구체적으로 요구.
 47:5-6/ '바로가...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왔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닌 호의를 베푸는 근거를 명시.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서 직업의 기회까지 허락.
 - 요셉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복이 자신의 목축에도 성공을 보장하리라 기대.

3) 바로 앞에 선 야곱(47:7-12)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나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 47:7/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족장이 이방인에게 직접 축복한 유일한 경우; 야곱의 지위가 우월함을 암시.
 - 야곱이 족속 지도자였으며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
 - 야곱이 선조들은 달리 이방의 땅에서 정중한 대우를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
 - 47:8-10/ '네 나이가 얼마나': 고대 근동 문화가 장수에 두는 가치를 반영.
 (연로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지혜를 소유: 시 128:5-6; 시 105:22).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조상들과 같이 외지인으로 살았음을 토로.
 - 야곱은 이때로부터 17년을 더 생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배신으로 점철된 상처 입은 삶-젊은 시절 자신이 저지른 속임수의 대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바로에게 적절한 예의를 보이지만 '당신의 종'과 같은 표현은 하지 않음.
 - 에서에게 보인 태도와 대조.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 47:11-12/ '라암셋': 고센 땅을 가리킴. 훗날 이들의 후손이 애굽의 노예로 세운 국고성 '라암셋'으로 알려짐.
 '소유로 삼게 하고': 야곱 족속이 자신들 소유의 땅에 정착-가나안 정착의 전조.
 '식구(자녀)를 따라... 봉양하였더라' 유다의 미래 세대에 대한 걱정(43:8)을 반영; 요셉의 약속을 이룬 것.

10. 요셉의 애굽 행정(47:13-31)

1) 요셉이 바로에게 땅을 얻게 해주다(47:13-26)

13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14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15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16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17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 47:13-14/ '기근이 더욱 심하여...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하니': 끔찍한 기근의 계속.
 '요셉이...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모든 돈을 다 모아 요셉에게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좌절.
- 47:15-17/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애굽인이 요셉에게 곡물 분배를 계속해 달라고 요구한 근거.
 '너희의 가축을 내라': 가축을 식량과 교환할 것을 협의.
 - 가축과 곡식을 교환한 요셉의 행위는 탐욕스러운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의 감당.

18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 이라
 19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20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읍궤었으나
 22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 47:18-19/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더이상 협상 수단이 남지 않은 백성들.
 - 요셉의 꿈은 형제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그 앞에 굴복함으로 확대되어 성취.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종이 되리니':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기를 제안.
 '종자를 주시면': 기근 중에도 파종함으로 땅의 황폐화를 지연할 가능성.
 - 그렇게하지 않으면 바로 왕실이 소유하게 될 토지도 무용지물이 될 것 또한 암시.
- 47:20-22/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기근의 결과 애굽의 땅은 바로의 소유가 됨.
 '요셉이... 백성을 성읍들에 읍궤었으나': '노예로 만들었다'로도 해석이 가능; 요셉의 영향력 강조.